

# 숭실대학교 대학 채플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제5세부과제: 학생들의 채플에 대한 기대 연구 -

한 현 수\*

## I. 서론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이 처한 채플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채플을 통해 진리와 봉사의 개교이념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숭실대학교의 채플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세부과제에서는 학생들의 채플에 대한 불만, 만족도, 기대 사항 등을 수집, 조사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들과 형식들을 찾아내어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채플모형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본교 재학생들 중 채플을 최소한 1년이상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458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설문지(부록 1 참고)를 통해 의견을 모았으며 타대학에서의 학생들의 생각과 교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채플을 시행하는 전국의 20여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교목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 설문에 응답한 458명은 7개 단과대학 별로 2개 학과(법대는 1개학과)를 선정하였고 2, 3, 4학년 각 학년에서 임의로 10명씩을 선정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교수들의 의견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들의 의견도 본 연구의 결론에 도움을 주었다.

채플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신자, 비신자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으며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은 신자이면서도 채플의 분위기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었다. 비신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채플에 대해 극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주요

---

\* 본교 전자전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선교 대상인 이들에게 배척받는 지금까지의 채플방식을 과감히 개선하지 않으면 원래 채플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교독교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기독교 대학의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우리대학이 먼저 채플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서 기독교 대학의 장자역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1. 채플의 목적 및 현실의 고찰

승실대학은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학교법인 승실재단 정관 제1장 제1조 명시) 이러한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독교 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사내규 제16장에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시행세칙에는 대학예배를 기독교 교육의 핵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기독교 과목의 이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대학에서 채플을 운영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기독교 정신 교육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도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는 정량적으로 평가된 적이 없으며 채플의 운영방식도 수십년에 걸쳐 거의 같은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승실대학이 서울에 재건되고 지금까지 학교의 규모가 20배이상 확장되고 대학 구성원들의 신앙적인 성향도 크게 변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제야 말로 우리대학의 교육실의 위상과 교목의 의무, 그리고 채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대학의 설립 목적은 흔들리는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2. 학생들의 종교적인 분포

현재 우리 대학은 학생의 선발에 있어서 아무런 종교적인 제약을 두고 있지 않는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우리 대학 학생들의 종교를 기준한 분포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 학년별 기독교인의 분포

구분	기독교	기독교(천주교포함)	타 종교	응답자총수
2학년	60	70	71(61)	131
3학년	62	69	79(72)	141
4학년	60	74	114(100)	174
계	182(40.2%)	213(47.2%)	264(58.4%)	452

표 2: 학년별/성별 기독교인의 분포

구분		기독교	천주교포함시	타 종교 (천주교포함시)	응답자총수
2학년	남	34	39	48(43)	82
	여	26	31	23(18)	49
3학년	남	39	43	43(39)	82
	여	23	26	36(33)	59
4학년	남	39	45	85(79)	124
	여	21	29	29(21)	50
계		112(61.5%)	127(59.6%)	176(66.6%) (161(61%))	452
		70(38.5%)	86(40.4%)	88(33.4%) (72(39%))	

위의 분포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중에서 기독교인이 25%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대학의 기독교인 수는 40%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우리대학이 기독교 대학이라는 사실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대학의 특성화 작업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학생들의 모집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 3. 현재의 대학 채플 운영 방법

#### 1) 교목실의 구성

앞 절에서 지적인 목적을 위한 행정 조직으로 교목실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대학의 건학 이념에 걸맞게 교목실은 행정기관 중에서 선입기관이며 현재 4명의 교목, 2명의 연구원, 그리고 사무과장이 다수의 직원 및 조교의 도움을 받아 채플을 운영하고 있다. 교목은 채플의 운영과 기독교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 2) 채플의 시간 배정

채플은 한학기 동안 12에서 14주에 걸쳐 주당 12회(주, 야간 합계)를 진행하고 있다. 채플의 참여 대상은 이공계를 구분하고 계열별로 여러 학과를 합하여 학년별로 묶고 있다.

#### 3) 채플의 형식

채플은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인 예배 의식에 따라 진행하며 기도, 찬양, 설교, 그리고 축도의

순서이다. 채플의 진행은 대부분 교목이나 교목실의 연구원(전도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기도는 본교의 교수들이 그리고 설교는 본교의 교목이나 교수 그리고 타 기관의 목사들이 담당하였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예배 진행에의 참여 기회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찬양, 무용, 연극, 영어예배가 진행되었다. 지난 5학기 동안 진행된 특별 예배 방식은 전체예배의 약 20%정도이다.(표 1 참조) 이러한 예배 방식은 일반적인 예배 방식에 비하여 학생들의 참여나 진지함을 이끌어 내는데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

#### 4) 채플 강사의 선정

채플의 강사는 교목실의 연구원(전도사)이 대체적으로 결정하고 섭외하고 있으며 교목실장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 5학기 동안 우리대학의 채플을 인도한 설교자들의 분포를 표 3에 정리하여 보았다. 교내에서는 교목을 포함한 교수 소수가 참여하였으며(약 35%) 그 외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였다.

채플의 운영이 대학 단위로 진행되고 있음에 비해 강사의 선정에 있어서 이를 특별히 고려한 흔적은 없으며 실험예배를 제외하면 90% 이상의 강사가 목사였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평신도들의 선교사역이 눈에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강사의 다양화 및 적절한 시간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강사의 선정에 있어서 교수들에게 추천을 의뢰하고 타당하다면 섭외 및 접대도 의뢰하여 교수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학 기 구 분	94년 2학기			95년 1학기			95년 2학기			96년 1학기			96년 2학기			비율(%)				
	월	회	수	월	회	수	목	월	회	수	목	월	회	수	목		월	회	수	목
본교 교목	3	3	3	3	3	3	2	3	3	3	2	1	1	1	1	2	2	2	2	29.2
본교 총장				1	1	1	1													2.7
본교 교수			1							1						1				2.7
사회사업 목사	1	1			1	1			1							1		1		4.7
연구소 목사	1		3	2	4	2			1	1	1							1		10.9
타교교목(신학 대교수 포함)		1					1	4	1	1	3			1	2			2		10.9
교회목회자	2	3		2			4	1	3	2	2	3	2	2	4	3	1			23.1
타대교수				1		1	1		1	1		1	2	2	1		1	3	1	10.9
무용예배	1	1	1					1	1	1	1					1	1	1	1	위의 값은 강사들 중의 비율임
찬양예배		1	1	2	2	1	2	1		1	1	1	1	1	1	1	1	1	1	
연극예배	1	1	1									1	1	1	1	1	1	1	1	
영어예배												1	1	1	1					
실험예배				1	1	1	1													

#### 4. 기존의 채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채플의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설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설문은 크게 3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채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둘째는 ‘기존의 예배 진행방법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셋째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개선을 원하는 점’에 대한 질문들로 구분된다. 학생들의 반응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위의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 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채플의 형식

먼저 우리대학의 채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구분	예배의식	강의	교양강좌	앞의 혼합	미응답	총
기독교인	66	28	51	46	(비기독교인) 261	452
비기독교인	95	12	47	49	(기독교인) 249	452

위의 표에서 보면 기독교인의 경우 채플을 예배의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34.5%인 반면, 교양강좌, 강의 및 예배의식의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50.8%에 달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 학생 중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채플을 예배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반대로 비기독교인 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6.8%가 채플을 예배로 생각하고 있으며 같은 비율의 학생이 예배의 변형, 혹은 교양강좌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비기독교인 학생의 관점에서 채플을 예배로 생각하고 있어 재미있는 대조를 이룬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우리대학의 채플은 예배의식과 교양강좌의 혼합정도로 학생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채플에 대한 선호도

기존의 채플 진행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예배의 순서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구분	찬송	기도	설교	관심없음	미응답	총
기독교인	89	18	74	20	(비기독교인) 251	452
비기독교인	34	14	53	121	(기독교인) 230	452

위의 표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경우 설교(36.8%)보다도 찬송시간(44.3%)을 선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성교인의 경우 설교시간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장 큰 것에 비해 젊은이들은 찬양예배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 우리대학의 기독교학생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비교독교인의 경우 자신들이 잘 모르는 음악시간 보다는 차라리 설교시간이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응답자의 54.5%가 관심없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채플에 대한 의도적인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응답 결과는 앞으로의 채플 운영 방법이 새롭게 변해야할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다) 채플을 통한 선교 효과

채플의 목적인 기독교 정신의 교육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채플이 개교이념인 진리와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배우는데 채플이 도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미응답	총
기독교인	23	77	61	32	(비기독교인) 259	452
비기독교인	6	52	76	77	(기독교인) 241	452

기독교인의 경우 불만족하는 경우(16.5%)가 매우 만족하는 경우(11.85%)보다 많고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51.8%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기독교인들의 경우 좀 더 강력한 선교 매체로서의 채플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독교인들도 현재의 채플방식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사의 표시라는 설명도 함께 가능하도록 한다.

반면에 비교독교인의 경우 불만족하는 비율(36.5%)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비율(27.5%)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응답의 원인을 다른 질문에 답변한 불만 사항들을 종합하여 유추해 보면 채플의 의무출석시간에 대한 불만, 채플의 강제성에 대한 불만등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교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채플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갖게됐다	고려 중	아니다	미응답	총
응답자수	3	43	216	190	452

이와 같은 응답은 ‘채플을 통해 기억에 남는 설교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한 수가 지난 5학기동안의 강사중에서 4·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부록 3참조)과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학생들이 ‘신앙적인 문제로 교목실을 찾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총응답자 383명 중 4명만이 한번이상 교목실을 찾았다는 응답을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5. 개선 방안

4절에서 설명된 학생들의 채플에 대한 반응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플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학 차원에서 채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채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채플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다. 따라서 채플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전에 채플의 성격에 대한 대학 구성원 간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대학의 채플이 선교를 위한 예배의 훈련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가) 기존의 채플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채플에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은 1) 채플의 진행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과 2) 채플을 대학별(혹은 학과별)로 교수들에게 진행을 맡기는 방법, 그리고 3) 채플에 학생들이 원하는 순서를 가변적으로 삽입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채플의 진행을 학생들이 맡는 경우,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순서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찬송인도	기도	설교(간증)	사회	미응답	총
기독교인	89	30	2	41	(비기독교인)290	452
비기독교인	31	43	16	65	(기독교인) 297	452

기독교인의 경우 50%이상이 찬양 시간을 확대하고 찬양의 진행을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

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예배의 사회나 기도를 맡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비교독교인의 경우는 사회 담당이 적합하다는 응답(41.9%)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찬양보다는 기도 순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가지 관심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질문에 대한 미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채플의 진행을 각 대학의 교수들에게 맡기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채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교수들이 채플을 진행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가능하면 학과별로 채플을 진행하도록하여 예배의 단위를 축소하고 교목실은 이의 진행을 감독하는 방법이다. 현재 진행되는 학생 채플에 순서를 맡지않으면서도 참여하는 교수의 수는 채플당 1-2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채플에 참여하는 자세는 매우 불성실할 수밖에 없고 채플의 필요성도 크게 강조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학년별로 진행되는 채플을 각 대학별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과별로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감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방법이 시행되면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한층 가까와질 것이며 더불어 학생지도도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 채플을 구성하여 한달에 한번정도는 학교 전체채플을 운영하여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일반예배 형식을 유지하면서 채플의 순서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다. 현재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학교의 소식은 대개 단편적이고 특히 학교의 특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채플시간을 우리대학의 사정을 알리고 특히 학생들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며 소속감 및 일체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우리대학의 교육현장을 낭독하거나 '진리와 봉사'의 구호를 채플의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외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순서를 알아 보았다.

구분	옆사람과 인사	학교소식	울동찬송	기타	미응답	총
기독교인	52	62	55	1	(비기독교인)282	452
비기독교인	49	87	26	2	(기독교인) 288	452

#### 나) 실험예배방식의 도입

채플의 선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예배의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채플에서 시도된 실험예배의 방식은 음악예배, 연극예배, 그리고 무용예배와 영어예배가 있다. 이들 실험예배가 일반예배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아보았다.

구분	일반예배	음악예배	연극예배	무용예배	미응답	총
기독교인	5	80	61	29	(비기독교인)277	452
비기독교인	9	52	68	48	(기독교인) 275	452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인들의 경우조차도 일반예배에 대한 선호는 2.9%에 불과한 반면 실험예배에 대해서는 97.1%로 절대적인 선호함을 보이고 있다. 비기독교인의 경우 95%에 이르는 학생들이 역시 실험예배를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실험예배가 진행될 때의 예배 분위기는 일반예배가 진행될 때의 경우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가 적극적이고 진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험예배가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대학의 개교 이념을 학습하고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험예배의 형식은 무엇이 있을 수 있나?

1. 음악예배: 기존의 실험예배에서 음악예배는 매우 오랜기간 검증된 거친 방법으로 이에대한 효과나 예배의식으로서의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대학의 Westminster Choir나 Mandorin Orchestra는 학생들의 동아리 성격을 가지면서도 선교적인 사명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들이 주관하는 예배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Gospel이 대중가요의 한 장르가 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Gospel 가수를 초대해서 간증을 겸한 음악예배는 시도할 만하다.

2. 연극(영화)예배: 연극예배는 중요한 것이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의 명확성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 의한 연극예배의 경우 극본의 선택 과정에서부터 교목실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들의 연습과정에도 참여하여 예배의 의미를 훼손할 가능성을 없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부의 연극단체를 초청할 경우 대본의 확인은 필수적이며 연기자들의 신앙적인 성향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Multimedia시대를 살면서 영상매체의 교육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영화를 이용한 예배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하다.

3. 무용예배: 무용예배는 몸의 동작과 음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다른 예배방식에 비해 학

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는 가장 적합한 형태 중의 하나이나 메시지의 전달이 쉽지 않다. 무용예배의 이러한 특성을 살리면서 예배로서의 의미를 잃지 않으려면 몸의 동작과 음악이 가지는 의미를 중간 중간에 설명하는 순서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몸의 동작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이란 면에서 의상과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4. 간증예배: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금까지 참석한 채플에서 기억에 남는 설교자를 기록하도록 해보았다. 불행하게도 485명의 응답자 중에 기억되는 설교자는 우리대학의 교목을 제외하면 34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억되는 설교자는 대부분 경험을 기반으로한 간증 설교를 하신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유명인들의 간증설교는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인, 연예인,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의 신앙체험은 학생들이 채플에 임하는 자세를 바꾸기에 충분할 것이다. 또한 우리대학의 교수 중에서 지난 5학기 동안에 설교하신 교수는 3명에 불과하다. 우리 대학의 신앙있는 교수, 그리고 총장의 설교 참여는 학생들에게 교수들이 학문적인 스승일 뿐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임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5. 대화예배: 이번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학생들이 자신의 정신적,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노력은 매우 소극적이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는 신앙문제는 공통적인 면이 많고 공개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교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화형태의 예배를 통해 학생들이 가지는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일정기간 학생들로부터 신앙적으로 궁금한 질문을 수거하여 이들에 대한 답변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생들이 갖는 신앙적인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씀만 전달하는 방식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예배의 형태라고 답변한 자료를 부록 2에 첨부하였다.

#### 다) 융합형 예배의 진행

결론적으로 채플이 학생과 교수 간의 일체감을 높이고 선교적인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면 채플을 학과별로 진행하며 실험예배와 전통예배의 융합형 예배형식을 개발해야 한다.

채플에 참여하는 인원을 300에서 500명 단위로 정하여 해당학과의 교수들이 예배의 진행을 맡게 하고 강사는 해당학과의 교수가 추천하는 것을 교목실에서 검증하는 형식으로 결정한다.

또한 한 학기에 채플이 12회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에서 제시한 실험예배 중에서 Gospel 찬양예배, 합창과 악기 연주 예배, 영화예배, 연극예배, 연예인 간증예배, 사회 저명인사의 간증예배, 무용이나 대화예배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일반 예배의 경우 학생들이 초대하고 싶은 강사,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난 후 다시 초빙하고 싶은 강사를 설문을 통하여 알아보고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금은 파격적일 수 있으나 한 학기에 1-2회는 예배의 형식을 탈피하여 완전한 교양강좌의 형태로 의식있는 평신도를 초빙하여 사회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도전의식을 일깨우는 것도 시도해 볼만하다고 판단된다.

#### 라) 기타 방법

비기독교 학생들의 설문 응답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역시 채플의 자유화 문제이다. 채플의 의무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 심리는 예배시간에 보여주는 태도에서 극명하게 들어난다. 처음 1학년때는 비교적 모든 순서에 호응하다가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여자세가 매우 불량하여 예배를 모독하는 정도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가끔 목격된다.

기본적으로 채플의 목적이 학생들에게 기독교정신을 교육하고 예배의 정신을 훈련하는 관점에서 보면 채플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면 현재 6학기의 채플이수 기간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2학기 정도는 사회봉사로 대체시켜 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학생들의 사회봉사 기관은 학교에서 인근 복지 시설로 한정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관리 감독하여 진정한 봉사의 훈련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복지 시설에서의 봉사시간 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도 학교 차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봉사 계획을 준비하고 시행한다면 개교 이념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성경공부 시간을 교목실에서 적극적으로 간여하고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도 채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신앙훈련을 받는 길은 이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이 일대일의 신앙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교목실에서 신앙있는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훈련하여 이들이 학생들을 일대일로 접촉하고 연구실에 불러모아 성경공부를 시행하면 학생지도의 효과와 함께 선교의 효과도 크게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채플을 통해 진리와 봉사의 개교이념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숭실대학의 채플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채플에 대한 불만, 만족도, 기대 사항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분석하여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채플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정확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의 응답자를 7개 대학에서 골고루 선발하였으나 자료의 채집집단의 형평성이나 답변의 진지함 등을 일관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채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가 지금까지 본 연구자가 학생 채플에 참여하여 체감하던 것과 거의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료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분석된 문제나 제안된 운영방식은 모르고 있었다거나 전혀 새로운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겠다.

가) 행정 책임자와 채플 진행 주체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

우리대학에서 채플의 실제 위상은 대학의 정관이 정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채플이 교수들의 관심 사안에서 벗어난지 오래되었고 학생들의 의식이나 참여자세 또한 채플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러한 때에 채플이 학생들에게 신앙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기독교정신을 훈련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채플 외적인 면에서 대학의 행정 책임자들과 채플을 진행하는 주체들의 의지가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천명되고 채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와 직원들이 학생 채플에 같이 참여하고 진행을 돕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이 이들을 통하여 채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기독교 정신을 훈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학생들의 마음에 도전하는 채플진행방식이 끊임없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예배의 본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험예배를 도입해야 한다. 비기독교인의 경우 실험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약한 것이 이미 증명되었으며 기독교인의 경우도 대학에서 드리는 예배는 기존 예배의식의 틀을 벗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예배에 쉽게 접근하게하는 방법은 실험예배의 비율을 대폭 확장하고 일반예배의 형식인 경우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사를 초빙하는 관심을 배풀어야 한다. 지난 5학기동안 초빙된 강사 중에서 사회의

현장에서 복음을 몸으로 체험하는 최일도목사를 기억하는 학생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보면 강사의 선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봉사나 학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마련하는 환경문제 프로그램에의 참여, 그리고 교수님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정기적인 성경공부예의 참여도 채플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 부록 1: 바람직한 대학 채플을 위한 설문

다음의 설문에 대해 합당한 란에 √ 표시 바랍니다.

1. 몇 학년 입니까?

① 2학년\_\_\_ ② 3학년\_\_\_ ③ 4학년\_\_\_

2. 군복무는 마쳤는지요?

① 예\_\_\_ ② 아니오\_\_\_

3. 성별은?

① 남\_\_\_ ② 여\_\_\_

4.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_\_\_ ② 천주교\_\_\_ ③ 불교\_\_\_ ④ 무교\_\_\_ ⑤ 기타( )

5. 기독교인(천주교 포함)인 경우 신급은?

① 세례(영세)\_\_\_ ② 학습\_\_\_ ③ 기타( )

6. 기독교인인 경우 교회에 출석한 기간은?

① 출생시부터\_\_\_ ② 10년이상\_\_\_ ③ 5년이상 10년미만\_\_\_ ④ 5년이하\_\_\_

7. 우리대학의 현 채플 형식을 무어라 생각합니까?

① 예배의식\_\_\_ ② 강의\_\_\_ ③ 교양강좌\_\_\_ ④ 앞의 혼합\_\_\_

8. 채플 순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서는 어느 것입니까?

① 찬송\_\_\_ ② 기도\_\_\_ ③ 설교\_\_\_ ④ 관심없다\_\_\_

9. 채플 순서에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옆사람과의 인사\_\_\_ ② 학교소식의 전달\_\_\_ ③ 찬송 및 울동\_\_\_ ④ 기타\_\_\_

10. 지난 학기에는 다양한 채플형식을 시도했습니다. 어떠한 형식이 가장 관심있었습니까?  
 ① 일반 예배형식\_\_ ② 음악예배\_\_ ③ 연극예배\_\_ ④ 무용예배\_\_  
 ⑤ 기타 ( )
11. 개교이념인 진리와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배우는데 채플이 도움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_\_ ② 약간 그렇다\_\_ ③ 그저 그렇다\_\_ ④ 아니다\_\_
12. 비기독교인이었던 경우, 채플을 통해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① 예\_\_ ② 고려 중\_\_ ③ 아니오\_\_  
 ( 1)예인 경우 가정 결정적인 계기를 준 사건이나 설교자가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사건 혹은 설교자: )
13. 학생들이 예배의 진행에 참여하는 경우, 어느 순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찬송인도\_\_ ② 기도\_\_ ③ 설교\_\_ ④ 사회\_\_ ⑤ 기타( )
14. 지금까지 교목실에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회정도) ② 아니오\_\_
15. 지금까지 채플에 참석하면서 가장 감명을 준 설교자 혹은 예배 진행자는 누구입니까?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16. 채플에 초청하여 설교해주었으면 하는 분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교내,외 구분없이)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17. 우리대학의 채플에서 새롭게 시도해 보았으면 하는 예배방식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18. 채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부록 2: 학생들의 제안하는 채플 형태나 순서

학생들의 예배진행 참여, 음악예배, 종교영화 감상 토론, Gospel Song 찬양과 경배  
 토론 예배, 타학교와의 채플교류, 자유기도시간 확충, 연극 예배, 음악경연대회  
 유명인사간증, 오페라 형식, 애교심을 높이는 방향, 연예기독교인들 초청예배  
 야외 예배,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게 친목을 위한 방식, 서로 환영하는 의미의 인사  
 부활절 행사에 함께 참여(예: 달걀 나누기 등), 무용예배, 명상예배, 사회봉사  
 교수님들의 참여

## 부록 3: 학생들이 초빙을 원하는 강사 명단

한경직 목사(14) 최일도 목사(10) 김영삼 대통령(6) 김수환 추기경(5) 김진홍 목사(5)  
 황수관 박사(5) 곽선희 목사(4) 김대중씨( 4) 조순 서울시장(4) 조용기 목사(3)  
 김삼환 목사(2) 어윤배 총장(3)  
 강달희 목사, 교육부장관, 기독교에 해박한 스님, 김연상 목사, 김영길 총장  
 김준곤 목사, 김창인 목사, 김철안 목사, 고덕상 나무십자가 목사  
 립인식 목사, 마광수씨, 박경리씨, 박영선 목사, 석원태 목사, 성신여대총장  
 신상언씨, 안병욱씨, 안요한 목사, 김기복 연세대 총장, 연예인 간증  
 오창우 목사, 옥한흠 목사, 용혜원 목사, 윤승부 목사, 이동원 목사  
 이시종씨(서강대), 이해인 수녀, 임영수 목사, 장시대 목사, 전병욱 목사  
 전은경 교수, 하스데반 선교사, 황준성 교수, 김서택 목사